

# 숨은 풍경들

이추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INVISIBLE CITY

한가로운 도심 공원의 수많은 비둘기들이 퍼포먼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공원 매점에서 구입한 ACE 비스킷은 이들의 유혹하는 미끼이자, 퍼포먼스의 대가(代價)로 주어질 것이다. 연출자는 미리 점찍어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비스킷을 손으로 잘게 부수어 공원 바닥에 글씨를 써내려간다. INVISIBLE CITY, 한자씩 스펠링을 써내려가는 동안 몇몇 대담한 녀석들은 그의 존재를 무시한 채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가 글쓰기를 마친 후 물러난 자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아귀 같은 비둘기 떼에 의해 점령당한다.

서로를 견제하는 비둘기 떼의 극성스런 몸짓에 글씨는 완전히 가려진다. 게걸스럽게 식사를 마친 녀석들이 한두 마리씩 서서히 자리를 떠나면서, 희미하게 남은 글씨의 흔적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그럴듯하게 시각화한다. INVISIBLE CITY

현대의 도시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치밀한 시스템의 딱 짜인 매트릭스 속에서, 지극히 예측 가능한 패턴의 원초적 욕망을 쏟아내는 인간의 모습은 바닥에 뿌려진 비스킷을 향해 달려드는 비둘기 떼와 많이 닮았다.

## AUTO-MOBILE LANDSCAPE

가상의 메트로폴리스를 재현한 미니어처 건물들이 나지막이 펼쳐져 있다. 육각형의 넓고 평평한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조그맣고 앙증맞은 파스텔 톤의 건물 모형들이 올망졸망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들은 바닥에 짙은 바퀴를 감추고 있고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Flexible Landscape<sup>1</sup> 속 건물들은 정교한 스케일과 디테일을 지닌 건축 모형과 달리,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변형시킨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각각의 건물을 꽤나 사실적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중에 각인된 브랜드와 건물의 형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sup>1</sup> 고도로 발달된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노동 생산성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미국의 신경제 또는 신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형태를 강조한 개념이다. 이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단순한 과거의 규제 철폐라기보다 국가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난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세넷 지음,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1, pp.7-12

이들은 통신과 방송(KT, KBS), 백화점과 영화관(Lotte, MEGA BOX), 언론(조선일보), 아파트(現代)와 교회, 은행(한국은행) 등 21세기 한국 도시의 기능적 풍경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들이다. 이들은 1990년대의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금융과 자본의 무한한 자유흐름을 통해 거대화한 기업과 방송, 언론, 엔터테인먼트, 건설, 은행 그리고 종교<sup>2</sup> 시설로, 한국의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들이다. 이들은 현대사회 대중들의 무한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반영시키는 공간이자 소비와 유통이 최고의 가치가 된 '유연한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본의 흐름이 발생하는 공간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대단한 유연성과 확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의 맥락이나 역사성, 삶의 패턴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우뚝 솟아 모든 것을 평정하며, 시공을 초월한 무차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이들의 내뿜는 강력한 페로몬에 취해 자신의 현대적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들의 존재를 등극시킨다. 현대인은 이동 통신에 의해 무한 소통(or 무한 구속)의 자유를 얻었고, 스포츠와 쇼핑, 영화를 소비하며, 종교에 의탁하여 위안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의 개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동시에, 그들 앞에 다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존재들이다. '소비'하는 인간은 현대적 삶의 풍경을 구축한다. 개인의 완벽한 소비를 위해 친절한 '시장(Market)'씨들은 24시간 어디에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준다. 인간들은 편리함에 길들여지고, 서비스의 부재를 존재의 부재와 동일시하며, 현대적 삶에서의 박탈로 이해한다.

Flexible Landscape 너머에는 화사한 낙원의 도로를 재현한 싱글 채널 영상(Euphoric Drive)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 관객들의 시선은 말끔하고 시원하게 뺨 뚫린 환상적인 도로(눈부신 레몬옐로의 따뜻한 빛이 충만한) 위로 미끄러지며 서서히 움직인다. 도로 위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며,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광고판들이 스쳐 지나간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 준다는(See the Unseen)’ 이동 통신사의 상큼한 광고판과 ‘요즘 어떠냐?’는 친구의 질문에 답해줄 나의 자동차, 내 애인에게 보여줘도 전혀 끌리지 않을 우리 아파트 광고가 스쳐지나간다. 나는 도시인이며, 지금 이곳은 소비하는 나를 위해 베풀어진 극상의 공간이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할 도시의 문명들이 내 앞에 펼쳐져있다. 환상의 드라이브!”  
우리는 모두 세상에 취해있다. 21세기 기술자본주의 문명은 우리의 몸을 숙주삼아 온갖 실험을 감행한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환각의 공간속에서 끝없는 욕망을 발산하며 이 세계를 탐닉한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정교한 첩바퀴에 발이 박힌 인간 모르모트처럼.

---

<sup>2</sup> 일부 교회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소규모 교회들이 사라지고, 대기업을 방불케 하는 거대 자본의 대형 교회들은 더욱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회의 수입구조의 상당부분이 신앙심 돈독한 부유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A BETTER TOMORROW?

광활한 핑크 빛 대지 위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숨이 끊어진 듯 보이는 이 남자는 흰 셔츠에 검은 양복바지의 전형적이며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다. 무언가에 쫓겨 급하게 뛰쳐나온 듯 그는 맨발이다. 그가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도시는 저 멀리 지평선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며, 날카로운 섬광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바로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 그와 도시는 하나의 운명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함께 종말을 맞은 비극적 사건의 이유는?

이 남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쥐고 있는 작은 나무 막대엔 그가 일상에서 되뇌었던 낙천적인 생활신조가 새겨져 있다. 'A Better Tomorrow' 오늘 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현실을 버텨왔던 그였지만, 당장 몇 분 후에 벌어질 미래의 종말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까? 인생의 최후를 이렇듯 허무하고 비참한 물음표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최후의 도시로부터 탈출했는지, 거대한 폭발의 폭풍으로 날려 온 것인지, 누군가 그의 사체를 유기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저 정체를 몰 한 남자가 불운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생을 마감한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화면의 왼편 대지에서는 짙은 농도의 점액 같은 유기적 형태를 지닌 검은 형상들이 유령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이 형상들은 실제 전시장에 입체물로 제작되어 설치가 되었다. 수십만 년 전 대지 위에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들의 사체가 압축된 석탄 결정체나 원유의 진액처럼 보이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빛과 생명을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깊은 어둠을 지녔으며, 소멸된 생명체의 모든 기운을 압착시킨 듯 한 기괴한 영기(靈氣)를 뿜어내고 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깊은 흑색은 생명의 호흡이 막혀 질식된 '사물의 농축된 형태'로, 파괴된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연기'로, 거대한 파도에 힘없이 휩쓸릴 것 같은 위태한 도시의 '검은 실루엣(Fantasia)'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낙관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다 같이 죽으면 괜찮은' 것이 평범한 현대인의 삶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만이 어제의 후회를 잊을 수 있다. '맹목적인 믿음'은 팍팍한 현대의 삶을 위한 선물이다.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 내일은 없다.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 FLEXIBLE LANDSCAPE

유비호는 <강철태양>(2000), <몽유>(2001)전을 통해 SF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이미지로 주목 받았다. 유비호의 작업은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사회, 정치, 경제 환경,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조건과 물리적, 심리적 반응들을 시각화 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작업은 자신의 심리적 내면을 탐구하는 작업과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중문화와 예술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공동 작업은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인터넷 기반 다중 소통의 가능성을 실험하거나, 영화와 TV 드라마 등 대중매체 형식을 이용한 작업, 여의도

공원,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주변 환경에 직접 개입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한 작업들이 그것이다.

Flexible Landscape 는 그가 체험한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과 자본화된 도시의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시각을 반영한 작업이다. 유비호는 완벽한 외양의 현대 도시와 일상 속에 도사린 알 수 없는 '불안'의 일면을 드러낸다. 그가 제시하는 현대 도시의 유연한 풍경들은 그저 밝고 경쾌한 놀이 공원처럼 즐거움과 행복, 자유가 넘쳐나는 낙원이거나, 정체모를 재앙으로 순식간에 소멸 할 수 있는 위태한 존재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다. 현실의 도시는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신기루와 같다. 실체를 아는 이는 허무감을 느낄 뿐이며, 모르는 이는 환상을 꿈꾼다. 어쨌든, 가치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구조를 반영하고, 상상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예술의 이름으로 온갖 스펙터클과 판타지, 도발과 일탈의 욕망을 제시한다 해도 음악을 멈추고, 책을 덮는 순간, 전시장을 한발 나서는 순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현실세계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정신의 방어시스템이 본능적으로 작동한다. 현실의 두려움은 예술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게 만든다. 예술은 멀고, 현실은 너무 가까울 뿐이다.